

June 2026
No. 395

INSS

전략보고

‘MAGA 신우파’의 부상과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하경석
haks@inss.re.kr

- I. 문제 제기
- II. MAGA 신우파(New Right)의 개념과 구조
- III. MAGA와 트럼프 2기 대외전략
- IV. 한미동맹에의 시사점

'MAGA 신우파'의 부상과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I. 문제 제기

II. MAGA 신우파(New Right)의 개념과 구조

1. MAGA 신우파의 개념
2. MAGA 세력의 분파
3.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의 부상

III. MAGA와 트럼프 2기 대외전략

1. 미국 트럼프 2기 대외전략의 특징
2. MAGA 기반 트럼프 2기 대외전략 평가
3. MAGA 신우파와 트럼프 2기의 결합

IV. 한미동맹에의 시사점

'MAGA 신우파'의 부상과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저자 | 하경석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 MAGA 신우파(New Right)의 형성과 내부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논증한다. MAGA는 단순한 대중운동이 아니라, 트럼프주의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지적·정치적 네트워크로서, 전통적 자유주의 국제주의와 보수주의적 혼합양상을 비판하며 국가주권, 산업정책, 거래적 외교를 강조하는 새로운 흐름이다. 본 연구는 MAGA 내부를 이념 분파와 권력 블록의 이중 구조로 파악하고, 특히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들의 부상을 중심으로 기술·산업 엘리트가 미국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비개입주의 세력과 기술 국가주의자 세력 간의 긴장이 '선택적 개입주의'로 재구성된 결과로 나타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 일관성을 가진 전략가라기보다 분파 간 경쟁을 활용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동맹의 거래화, 서반구 중심 전략, 기술패권 경쟁, 단기적 군사행동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질서가 군사동맹 중심 구조에서 기술·산업 중심 경쟁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기술·산업 협력을 포함한 복합동맹으로 재정 의하고 전략적 자율성과 기여 확대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주제어: MAGA, 신우파, 기술 국가주의자, 선택적 개입주의, 기술패권경제

I 문제 제기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기존의 국제주의나 전통적 보수주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변화를 보임
 - 동맹에 대한 비용 부담 압박의 구조화, 서반구 중심 전략의 부상, 중국에 대한 기술·산업 중심 경쟁의 강화, 이란 및 중동에서 나타난 단기·고강도 군사행동 등은 이례적임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특정 행정부의 정책 선택이나 일시적 전략 수정으로 보기보다, 미국 정치·사회 내부에서 형성된 새로운 권력 기반과 사상적 흐름이 대외정책으로 투영된 결과로 이해할 필요
- 이러한 맥락 하에서 본 연구는 미국 내 MAGA 신우파(New Right)의 부상과 영향력 증대에 주목
 - MAGA는 더 이상 단일한 정치 구호나 선거 동원 프레임이 아니라, 국가주권, 산업정책, 국경통제, 거래적 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보수주의적 세계관을 형성
 - MAGA 내부에는 다양한 이념 분파와 함께 정책 실행 능력을 갖춘 새로운 권력 집단이 공존¹
- 특히 MAGA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기술 국가주의자'들의 등장에 주목할 필요²
 - 테크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MAGA 권력블록의 성장은 미국 대외정책이 군사동맹과 가치외교 중심 구조에서 기술·산업·플랫폼 중심 경쟁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임
 -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과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내부 권력구조와 사상적 기반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MAGA 신우파의 개념과 내부 분파 구조를 정리하고, 특히 기술 국가주의자(테크 해밀턴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권력 재편이 트럼프 2기 대외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
 - 이를 통해 현재 국제질서가 단순한 세력균형 변화가 아니라, 동맹, 군사력, 기술,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경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규명하고자 함

1 본고에서 다룬 MAGA 세력 분파에 대한 기본 개념은 로라 필드(Laura Field)의 저서 및 저자 대면 인터뷰(2025.12.8./미국 워싱턴DC)에 기초하였음: Laura K. Field, *Furious Minds: The Making of the MAGA New Righ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5).

2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는 이를 '기술 해밀턴주의자(Tech Hamiltonians)' 개념으로 제시. 본고에서 제시한 '기술 국가주의자' 개념은 '기술 해밀턴주의자'와 같은 맥락에서 차용되었음. Walter Russell Mead, "The Rise of Tech Hamiltonians," *The Atlantic* (January 24, 2026).

-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어떠한 도전과 기회를 제기하는지를 도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재구성, 기술 동맹의 확대,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포함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II MAGA 신우파(New Right)의 개념과 구조

1. MAGA 신우파의 개념

- MAGA 신우파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중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트럼피즘(Trumpism)에 사상적 언어와 정책 정당성을 공급해 온 지적·정치적 네트워크를 뜻함³
 - 이 흐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였던 자유시장 중심 공화주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반공산주의·반권위주의 가치외교의 결합을 보수주의로 수용하지 않음 (레이진식 보수와 구분)
 - 대신 경제민족주의, 강경 이민통제, 사회보수주의(반 LGBTQ, 가족주의), 기술우위 산업정책, 거래적 외교를 결합하는 새로운 우파 운동으로 부상
- MAGA 신우파의 부상은 미국 정치외교에 주어진 연속적 충격이 누적되며 급진적·반체제 우파 아이디어가 '실제 정치 옵션'으로 부상한 결과
 - 9·11과 중동전쟁→2008 금융위기→동성결혼 합법화 등 미국 우파에 가해진 정치·사상적 충격에 대한 반발로 수십년 간 미국 보수주의 주변부에 머물렀던 아이디어들이 트럼프의 등장과 함께 정치권에 진입한 것
 - 카리스마적 보수 기독교와 신사도운동(New Apostolic Reformation, NAR) 등 부흥주의 종교 네트워크가 트럼프를 '선택받았으나 박해받는 지도자'로 추앙하며 동원에 핵심 역할⁴
 - MAGA 신우파는 공화당 내 중심축을 네오콘(Neo-conservative) 중심 질서에서 포퓰리스트·국가주의적 노선으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2. MAGA 세력의 분파

- MAGA 신우파는 하나의 노선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해석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
 - MAGA 내부는 클레어몬트파, 포스트리버럴, 내셔널 컨서버티브(또는, NatCons), 포퓰리스트 우파, 기술 국가주의라는 다섯 갈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이 단일 노선이 아니라 긴장과 경쟁을 내재한 복합적 연합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

3 Laura K. Field, *Furious Minds: The Making of the MAGA New Righ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5), pp. 1-5.

4 저자의 로라 필드 교수 인터뷰 내용 (2025.12.8., 미국 워싱턴DC).

- 단,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 세력은 엄밀한 의미의 이념 분파라기보다, 여러 MAGA 분파를 가로지르며 기술·자본·산업역량을 제공하는 '횡단적 권력 블록'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 유의

[표 1] MAGA 세력의 분파

분류	특징	세부사항
클레어몬트파 (Claremonters)	이론적 헌정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건국정신과 헌정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론적 보수주의 분파 엘리트 관료국가에 대한 반감, 강한 대통령을 통한 체제 복원 노력 전통적 네오콘과는 달리 가치외교에는 회의적이나 중국과의 체제 경쟁에는 비교적 강경한 입장 Claremont Institute 기반의 이론적 MAGA 핵심 그룹 (Michael Anton, John Eastman 등)
포스트리버럴 (Post-liberals)	철학적 반자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시장, 가치중립성 등 자유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며 공동체, 도덕, 종교를 강조 자유주의 질서가 사회적 해체와 도덕적 붕괴를 초래했다고 비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에 매우 비판적이며 가치외교에 회의 (Patrick Deneen, Sohrab Ahmari 등)
내셔널 컨서버티브 (NatCons)	정책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GA 에서 현실정치 영향력이 가장 큰 주류 시장보다 국가, 반글로벌리즘, 반중국 노선 채택,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및 국가역량 회복 강조 동맹은 유지하되 비용과 역할 조정, 선택적 개입(JD Vance, Marco Rubio, Josh Hawley 등)
포퓰리스트 우파 (Hard Right)	대중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력한 반이민, 반엘리트, 반글로벌리즘 성향 기반, 대중 동원과 정치적 분노 (resentment) 활용 엘리트와 글로벌리스트에 의해 배신당했다고 믿으며 문화, 국경사수, 정체성 전쟁의 첨병 역할 해외 개입에 회의적이며 'America First'를 가장 직접적으로 해석 (Steve Bannon, Tucker Carlson 등)
기술 국가주의자 (Tech Hamiltonians)	기술중심 패권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반도체, 우주, 방산을 통한 국가권력 강화 중국과의 경쟁을 군사적 측면을 넘어 기술과 산업 문제로 확장하여 인식. 전통 군사력을 소프트웨어, 데이터,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 국가-산업-금융 결합 구조를 기반으로 정책을 구현하는 권력 블록으로 작동 Elon Musk (DOGE, Tesla, SpaceX), Alex Karp (Palantir), Peter Thiel 등

■ MAGA 구분의 틀을 대외정책 분석으로 옮기면, MAGA 내부는 다시 두 개의 큰 정책 흐름으로 재배열해 볼 수 있음

- 하나는 해외 장기개입을 줄이고 국경, 치안, 산업 회복, 재정 부담 경감 같은 국내 문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보는 '비개입·우선순위 조정파(Restrainers)'이며 글로벌 질서 유지의 비효율성 지적

- 다른 하나는 첨단기술·산업력·국가권력을 결합해 미국의 전략우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는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이며, 기술과 산업을 통한 새로운 패권 경쟁에 더 관심
- 따라서 MAGA의 핵심은 흔히 말하듯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다시 국가전략의 중심에 놓을 것인가를 둘러싼 우선순위 재조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

3.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의 부상

- 기술 국가주의자는 실리콘 벨리의 기술·자본 엘리트와 MAGA 포퓰리즘이 결합하는 새로운 정치연합의 핵심 축
 - 이들이 '해밀턴주의자(Hamiltonians)'로 불리는 이유는,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전통을 따라 자본주의와 기술 발전을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권력, 군사력, 정치적 안정의 토대로 보기 때문
 - 기술 국가주의자 집단은 경제정책, 정치적 안정, 국가안보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AGA 포퓰리즘과의 지속 가능한 연합 가능성을 모색⁵
 - ※ 이 맥락에서 피터 티(Peter Thiel)은 일찍부터 내셔널 컨서버티브 진영과 연결. 일론 머스크·알렉스 카프 등은 트럼프 2기 들어 보다 노골적으로 국가전략, 방산, 우주, AI의 언어와 결합해 제도권으로 진입
- 다만 기술 국가주의자들이 MAGA 내부에서 아무 마찰 없이 수용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빅테크(Big Tech)에 대한 MAGA 내부의 논쟁이 존재
 -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은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을 “처벌해야 할 지배 엘리트”로 보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냄⁶
 - 반면, 밴스(J.D. Vance) 부통령은 자신을 기술 국가주의자와 포퓰리스트 우파 양쪽에 모두 속한 인물로 규정, 기술세력과 MAGA의 결합이 일시적 거래가 아니라 더 지속적인 연합이 될 수 있다고 주장⁷
- 즉, MAGA 신우파는 한편으로는 엘리트에 대한 분노를 배양분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유형의 기술·산업 엘리트와 손을 잡는 선별적 (반)엘리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5 Walter Russell Mead, "The Rise of Tech Hamiltonians," *The Atlantic* (January 24, 2026).

6 Dominick Mastrangelo, "Bannon on Musk, Zuckerberg: 'We'll break these guys eventually'" *The Hill* (January 20, 2025).

7 Theodore Schleifer, "Vance Tries to Bridge a Republican Divide Between Populists and Tech Leaders," *The New York Times* (March 18, 2025).

III MAGA와 트럼프 2기 대외전략

1. 미국 트럼프 2기 대외전략의 특징

-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정치적 승리 쟁취를 우선시 하는 대통령과 MAGA 내부의 분파 경쟁이 결합한 산물일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대전략을 가진 이념가라기보다 서로 다른 분파를 경쟁시키고, 특정 거래 시점마다 자신의 정치적 지렛대를 극대화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이해할 수 있음
 - 전통 MAGA 세력 기반의 제한주의자(Restrainers)들에게서는 “불필요한 해외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대중적 정당성을 차용
 - 기술 국가주의자(Tech Hamiltonians)들에게서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 기술·산업 수단”을 이끌어냄
-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포퓰리스트 우파와 기술 국가주의자의 메시지를 충돌시키면서도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
 -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이 자주 혼선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외정책이 단일 교리의 실행이라기보다, 경쟁하는 분파들을 트럼프식 거래정치로 묶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으로 해석 가능

2. MAGA 기반 트럼프 2기 대외전략 평가

- MAGA의 세력의 아젠다를 대통령 중심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공식 전략문서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남
 -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은 서반구를 최우선 지역으로 올려놓고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을 제시
 - 핵심은 미국이 서반구에서 다시 우월적 지위를 회복하고, 역외 경쟁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장악하거나 군사적 능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 2026 국방전략(NDS)은 첫 번째 과제를 '미 본토 방어'로 놓으면서 국경, 해상 접근로, 골든 돔, 그리고 파나마 운하·그린란드 같은 전략지점에 대한 접근 보장을 함께 언급
 - 같은 맥락에서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2025년 2월 파나마의 일대일로 참여 종료를 공개적으로 환영했고, 트럼프는 2025년에도 그린란드 통제에 대한 압박을 거두지 않음

- 따라서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America First)'은 국제문제로부터의 후퇴라기보다, 본토 방어와 서반구 재우위 확보를 한 묶음으로 보는 지정학적 재정의에 가까움
-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
 -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협상 레버리지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3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공유를 중단하고 군사지원을 멈췄다가, 키이우가 30일 휴전 제안을 수용하자 며칠 뒤 이를 재개
 - NATO는 이에 2025년 6월 GDP 5% 국방지출 목표를 수용했고, 미국은 유럽 방어에 있어 부담 분담(burden-sharing)을 넘어 부담전가(burden-shifting)를 이행⁸
- 유럽은 더 이상 가치공동체의 자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대상으로 재규정
 - EU안보연구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유럽인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보다 '필요한 파트너(necessary partner)'로 보기 시작했다고 진단⁹
- 대중국 경쟁 및 기술 패권 문제에서는 MAGA 내부의 제한주의자와 기술 국가주의자가 생각을 일정 부분 공유
 - 2026 NDS는 두 번째 핵심 과제를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국 억지로 제시하며, 제1도련선(FIC)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 능력을 구축하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
 - 동시에 2025년 AI Action Plan은 90개가 넘는 연방조치를 통해 AI 인프라 확대, 규제완화,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AI 수출 패키지(full-stack AI export packages)" 제공을 제도화
 - 2026년 사이버전략도 민관의 전례 없는 조정, 최첨단 기술 투자, 사이버 영역에서의 미국 우위를 전면에 내세움
 - ※ 즉, 중국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균형 문제가 아니라, 산업정책·방산혁신·AI 표준·동맹국 기술생태계 편입을 결합한 총체적 경쟁으로 바뀌고 있음

8 Armida van Rij, "Europe needs to make its own plan for peace in Ukraine - and rouse its people to the threat from Russia," *Chatham House* (March 7, 2025).

9 Giuseppe Spatafora, Steven Everts and Alice Ekman (eds.), *Low Trust: Navigating Transatlantic Relations under Trump 2.0* (EUISS: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25).

- 대중국 복합 견제 대목에서 기술 국가주의자들 실질적 영향력이 두드러짐
 - SpaceX는 안두릴(Anduril), 팔란티어(Palantir)와 함께 골든 돔 미사일방어 구상의 유력 참여자로 부상했고, 2026년 3월에는 팔란티어의 Maven AI 체계를 미군의 핵심 시스템으로 도입 추진
 - 이러한 흐름은 외교안보의 중심이 규범·가치 언어에서 플랫폼·소프트웨어·산업기반의 언어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함
 - ※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정책은 “강한 미국”을 말하지만, 그 강함의 물질적 기초는 전통적 동맹외교보다도 방산 스타트업, AI 인프라, 우주·사이버 플랫폼, 그리고 이를 후원하는 국가조달 체제에서 강조됨

3. MAGA 신우파와 트럼프 2기의 결합

-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MAGA 신우파 아젠다에 기반한 ▲ 선택적 개입 ▲ 비용전가 ▲ 기술패권 경쟁, ▲ 서반구 우선 ▲ 거래적 동맹관리의 결합임
 - 더 이상 미국 외교전략을 전통적 국제주의 시각으로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고립주의로 돌아간 것도 아님
- 즉, 트럼프 2기 대외전략은 특정 분파의 일관된 전략이 아니라 ‘비개입주의적 국내우선 노선’과 ‘기술 중심의 대외경쟁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함
 - 해외 장기개입이나 지상군 파병은 회피하면서도, 미국의 기술·산업적 우위를 유지·강화하는 영역에서는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경쟁을 택하는 “선택적 개입주의(selective engagement)”가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결정구조는 전통적인 이념 분파 중심 구조를 넘어 MAGA 정책 엘리트(NatCons)-기술 국가주의자-트럼프 대통령의 삼각 구도로 형성
 - 기술과 자본을 보유한 기술 국가주의자들의 아젠다와, 이를 정책으로 해석하고 통제하는 내셔널 컨서버티브 정치 엘리트, 그리고 이들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결합

IV 한미동맹에의 시사점

- 첫째, 한국은 트럼프 2기를 '미국의 철수'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
 - 미국은 세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MAGA 신우파의 아젠다에 따라 어디에 어떻게 관여할지를 더 가혹하게 재선별하는 중
 - 서반구와 본토 방어, 대중 억지, 동맹 부담전가가 그 핵심
- 둘째, 한미동맹은 앞으로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기술 협력까지 포함하는 복합동맹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 2026 NDS는 한반도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더 크게 지고 미국은 “필수적이거나 보다 제한적인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를 제공하는 방향을 명시
 - 이러한 제한주의적 움직임과 동시에 기술 패권적 움직임도 동시에 노정: AI Action Plan은 미국의 AI 하드웨어·모델·소프트웨어·표준을 동맹국에 묶는 전략을 공식화
 - 이는 동맹의 가치가 앞으로 역할분담 + 기술생태계 편입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뜻함
- 셋째, 한국의 대미 외교도 상대해야 할 네트워크가 달라짐
 - 전통적인 국무부·국방부 라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백악관의 기술정책 라인, 방산혁신 네트워크, 그리고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 SpaceX 같은 방산·기술기업 생태계까지 함께 읽어야 함
 - 오늘의 미국 외교안보는 정책문서뿐 아니라 실제 조달, 플랫폼 선정, 데이터·AI 인프라 투자 과정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
- 넷째, 한국의 대응은 '더 많은 기여'와 '더 큰 자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전략이어야 함
 - 가시적인 국방력 기여와 인태전략 협력, 미사일·우주·사이버·AI 협력을 강화하되, 동시에 정보·정밀타격·탄약생산·방산공급망 등에서 한국 스스로의 지속능력을 키워야 함
 - 특히,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SSN) 협력 논의¹⁰는 미국의 동맹국 부담분담 논리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요구가 만나는 접점이므로, 이를 한미동맹 격상의 카드로 활용할 필요

10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2025).

- 트럼프 2기 미국의 변화는 단순한 고립주의의 귀환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역량을 기술·산업 중심으로 재조직하면서 동맹과 국제질서를 보다 거래적이고 선택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필요
- MAGA 아젠다를 품은 트럼프식 거래외교 하에서 한국은 동맹의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자율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변동성에는 덜 흔들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

참고문헌

- Field, Laura K. 2025. *Furious Minds: The Making of the MAGA New Righ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strangelo, Dominick. 2025. “Bannon on Musk, Zuckerberg: ‘We’ll break these guys eventually’” *The Hill* (January 20).
- Mead, Walter Russell. 2026. “The Rise of Tech Hamiltonians” *The Atlantic* (January 24).
- The White House. 2025.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November 13).
- Schleifer, Theodore. 2025. “Vance Tries to Bridge a Republican Divide Between Populists and Tech Leaders,” *The New York Times* (March 18).
- Spatafora, Giuseppe, Steven Everts, and Alice Ekman eds. 2025. *Low Trust: Navigating Transatlantic Relations under Trump 2.0*. EUISS: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 Van Rij, Armida. 2025. “Europe needs to make its own plan for peace in Ukraine - and rouse its people to the threat from Russia,” *Chatham House* (March 7).

Abstract

The Rise of the MAGA New Right and Changes in U.S. Foreign Policy

Kyoung-Seok H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study analyzes the emergence and structure of the American MAGA New Right and examines how these changes have shaped the foreign policy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MAGA is not merely a mass political movement, but an intellectual and political network that provides ideological justification for Trumpism. This study conceptualizes MAGA as a dual structure composed of conservative ideological factions and power bloc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ise of the “Tech Hamiltonians” and the growing influence of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elites on U.S. grand strategy.

The foreign policy of Trump’s second term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isolationism, but as a form of “selective engagement” emerging from tensions between restrainers and techno-nationalists. Rather than acting as an ideologically consistent strategist, President Trump functions as the ultimate decision-maker who leverages competition among factions, advancing a policy framework that combines the transactionalization of alliances, a Western Hemisphere-centered strategy, tech-supremacy competition, and short-term military actions.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the international order is shifting from a military alliance-centered structure toward one increasingly driven by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mpetition. In response, South Korea must redefine the ROK-U.S. alliance as a comprehensive partnership encompassing not only security cooperation but also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collaboration,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greater strategic autonomy and expanded contributions.

Keywords: MAGA New Right, Tech Hamiltonians, Selective engagement, ROK-US Alliance, Techno-strategic competition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June 2026
No. 395